

■ 병오년 새해도 소비 위축 직격탄

# 광주 소매·유통 체감경기 ‘꽁꽁’

광주지역 소매·유통업 체감경기가 병오년 새해 들어서도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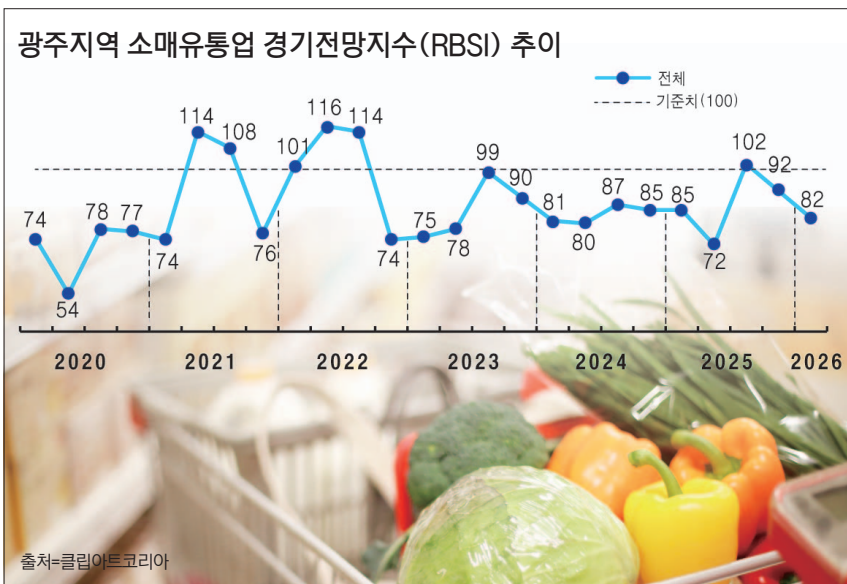
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계절적 비수기, 소비쿠폰 종료가 맞물리며 지역 상권 전반에 냉기가 돌고 있다는 분석이다.

12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광주지역 47개 소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1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RBSI)’ 조사 결과, 82를 기록해 전분기(92) 대비 10p 하락했다. 이는 2분기 연속 기준치인 100을 밑도는 수치로, 지역 유통업계의 체감경기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항목별로 보면 매출전망지수는 76으로 전분기(84)보다 하락했다. 동절기 유통인구 감소와 교환율·고물가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면서 매출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됐다.

소비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필수 소비 외 지출이 위축되고 있다는 현상의 인식이 지표에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수익전망지수는 87로 전분기(80)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다. 설 명절을 앞둔 단계적 매출 회복 기대감이 일부 반영됐으나, 인

## 1분기 경기전망지수 급락…고물가·비수기 등 악재상의 “소비쿠폰 종료, 매출 절벽 직결…제도 보완을”



건비와 공공요금 등 고정비 부담이 지속되면서 수익성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작용했다.

매출이 늘더라도 비용 압박으로 실제 손익 개선으로 이어지지 어렵다는 판단이다.

업체별 전망은 명절 특수에 대한 기대 여부에 따라 뚜렷하게 갈렸다.

대형마트는 설 명절 선물세트와 제수용품 수요 증가 기대가 반영되며 지수가 50에서 100으로 개선됐고, 백화점은 100을 유지하며 전분기와 비슷한 보험세가 예상됐다.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안정적인 고객층과 명절 소비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편의점은 94에서 71로 급락했

다. 동절기 야외활동 감소와 고물가로 인한 소비 여력 축소가 체감경기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슈퍼마켓은 109에서 67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는데, 소비쿠폰 사용 종료에 따른 고객 유입 감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생활 밀착형 유통 채널일수록 정책 변화와 소비 위축의 충격이 크게 나타난 셈이다.

지역 소매유통업체들이 꼽은 최대 경영 애로는 ‘소비심리 회복 지연’(40.4%)이었다. 이어 비용 부담(23.4%), 시장 경쟁 심화(12.8%), 상품 매입가 상승(8.5%), 고금리 지속(6.4%) 순으로 나타나 내수 침체와 고비용 구조라는 이중 부담이 현장을 짓누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명절 특수에도 불구하고 슈퍼마켓 등 지역 밀착형 유통업체의 체감경기가 급격히 냉각된 것은 우려스러운 신호”라며 “소비쿠폰 종료가 골목상권의 매출 절벽으로 직결되고 있음이 지표로 확인된 만큼, 소비자 실질구매력을 보전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유연성과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 ‘광주형일자리’ GGM, 50명 추가 채용

올해 전기·수출차 생산 증가  
6만대 넘어서 설비 증설 필요  
취업 한파 지역 청년들 ‘온기’  
기술직 연봉도 5000만원 돌파

광주지역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새해 벽두부터 50여명의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나선다.

12일 GGM에 따르면 지난해 캐스퍼의 국내의 판매 호조에 따라 역대 최대인 5만 8400대를 생산하며 누적 생산 20만대를 돌파하는 등 글로벌 자동차 생산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했다.

올해도 전기차 및 수출차 생산을 늘려 지난해보다 4.8%(2800대) 증가한 6만 1200대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처럼 생산 목표가 올해 처음으로 6만대를 넘어섬에 따라 시간당 생산량(UPH)을 현재 26.7대에서 29.5대로 증설할 방침이다.

72억여원을 투입해 설비증설공사와 함께 인원도 50여명이 추가로 필요해 공채에 나선 것이다.

원서접수는 오는 19일까지며 이후 인공지능(AI) 역량 검사와 서류 전형, 면접 전형, 건강 검진 등을 거쳐 3월 9일 입사에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채용사이트(ggm.recruiter.co.kr)를 통해 가능하다.

앞서 지난해 9월 하반기 공채에는 27명 모집에 992명이 지원, 평균 36.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처럼 공채에 취준

생들이 많이 몰린 것은 광주 지역 전자산업과 건설업의 동반 부진, 대기업 공장의 화재로 인한 실직과 휴직, 전남 여수석유화학산업단지의 불황 등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GGM이 극심한 취업 한파를 겪고 있는 지역 청년들에게 온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다.

실제 지난 2021년 9월부터 캐스퍼를 본격 생산한 GGM은 해마다 생산량이 늘어나 일감이 많아지면서 일자리도 2021년 555명에서 지난해 706명으로 증가했다.

이번에 50여명을 뽑을 경우 5년 내에 200여명이 늘어 올해 756명에 이르게 된다. 특히 직원 중 광주전남 출신이 무려 90%를 차지하고 있다. 20~30대 젊은이도 85%에 달한다.

생산량 증가에 따라 직원들의 일하는 시간도 늘어나 기술직 평균 연봉은 2021년 3100만원에 불과했으나, 2025년에는 광주시의 주가 지원비 360만원을 포함해 4900만원으로 크게 높아졌다.

이 중 상생 협력 기여금은 최고 59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75만원) 인상이며, 2023년 300만원과 비교하면 96%(290만원) 오른 금액이다.

또 올해 1월부터는 임금 항목에 직무급이 신설돼 직무 난이도와 업무 성과에 따라 개인별로 월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받게 됐다.

이는 임금 3%가 오르는 효과로 전년도 물가 상승률 2.1%를 합하면 5% 인상에 달해 기술직 평균 연봉이 5000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한국 라면을 고르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1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케이-푸드 플러스(K-푸드+) 점정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5.1% 증가한 136.2억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했다고 밝혔다. 라면은 전년 대비 21.9%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15.2억달러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 이날 서울 시내 대형 마트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라면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 AI 확산 대응…K콘텐츠 인재양성 속도 낸다

### 콘진원, 제작·수출 전주기 인력 육성…교육사업 추진도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콘텐츠 산업의 생산·유통 구조가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정부와 유관 기관이 인재 양성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2일 “2026년 인재 양성사업 교육운영 일정 통합공고”를 통해 인공지능(AI) 활용 교육부터 글로벌 수출 전문인력 양성까지 총 15개 세부사업의 연간 교육생 모집 및 운영 계획을 제시했다.

교육 수요자들이 경력 단계와 진로에 맞춰 사전에 일정을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로드맵은 기술 융합과 장르별 특화, 글로벌 진출 역량을 갖춘 인재를 단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제작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기술 역량과 함께 사업화·수출까지 연결되는 실무형 인재 풀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핵심 신규 사업으로는 ‘AI 특화 콘텐츠 아카데미’가 추진된다. 총 7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예비·미숙련 인력 900명과 전문·숙련 현업인 100명 등 1000명 이상 AI 활용 콘텐츠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예비·미숙련 과정은 AI 도구 이론과 실습, 전문·멘토링을 병행해 기초 역량을 다지고, 전문·숙련 과정은 실전 프로젝트 중심으로 사업화 가능한 콘텐츠 제작을 목표로 운영된다.

게임과 융복합 콘텐츠 분야 인재 양성도 이어진다. 나주=조환천 기자 pose007@

## GICON, ‘레인보우 버블잼’ × ‘벌크커피’ 협업

### 지역 콘텐츠·지역 기업 협력 통한 IP 확장 사례

지역을 대표하는 콘텐츠 기업과 커피 프랜차이즈가 맞손을 잡았다.

12일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인기 어린이 애니메이션 IP ‘레인보우 버블잼’ 캐릭터를 커피 프랜차이즈 벌크커피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협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광주시, 한국콘텐츠진흥원, GICON이 수행하는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을 통해 추진됐다. 커피 프랜차이즈 벌크커피와 ㈜컴퍼파이애니웍스가 함께 참여했으며, 지난 2일부터 일부 지역 매장을 중심으로 운영

되고 있다. 이번 협업을 통해 벌크커피는 레인보우 버블잼 캐릭터를 활용한 ‘실리콘 마그넷 3종 세트’와 ‘종이 컵홀더 3종’을 선보였다.

직영 매장인 전남대 직영점, 주월점, 상무운전점, 풍암점 등 4곳에서 매장캐릭터 굿즈를 활용한 전용 공간이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운영 결과에 따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온라인 이벤트와 오프라인 구매 연계 행사도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은지 기자 riozyb@

2026년 광남일보 제14기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원우 모집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선택입니다.  
글로벌리더 아카데미에서 새로운기회를 만드십시오.

모집기간 | 2026년 3월 13일(금) 오후 6시까지  
개강일자 | 2026년 3월 26일(목)  
모집인원 | 000명(선착순)  
강의시간 | 격주 목요일 19시부터 80분간 (18시부터 석식 제공)  
강의장소 | 추후 결정  
학사운영 | 1년 과정 (1학기 : 3월~7월 / 2학기 : 9월~12월)  
접수문의 | 광남일보 사업국 (T.062-370-7090 / 010-3394-9398)  
접수방법 | 당사 소정양식(E-mail : gnilbo2@daum.net / FAX. 062-370-7005)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중흥동 695-5) 4층, 광남일보 사업국

2026년 주요 강사진

김경일  
아주대학교 교수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경제 위어주는 남자)

김동규  
성악가

임진모  
음악평론가

이승재  
영화평론가

한다혜  
서울대 연구위원  
<텐텐드코리아> 공저자

광남일보